

현안리포트 05-029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주요국의 반응 및 영향

2005. 7. 25

KOTRA 동북아팀

【목 차】

【요약】	i
I. 위안화 평가절상 전격 단행.....	1
1.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	1
2. 위안화 평가절상 배경.....	1
3. 중국내 반응.....	3
II. 주요국의 반응	9
1. 미국.....	9
2. 일본.....	17
3. EU.....	25
4. 홍콩.....	28
III.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	32
1.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32
2.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33

【자료 요약】

I. 위안화 평가절상 전격 단행

1.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

- 7월 21일 19:00부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기존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평가절상 단행 발표

변경 전	⇒	변경 후
고정환율제 (1달러: 8.28 위안) (상하변동폭 0.3%)	2.1% 절상	관리변동환율제 (1달러 : 8.11위안) (상하변동폭 0.3%)
對미 달러에 페그		복수통화 바스켓 밴드에 연동예정 (바스켓 구성 통화 및 가중치 미발표)

※ 중국은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위안화 1일 변동폭을 상하 0.3%로 하였으나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달러화에 페그하여 사실상 고정환율제 운용

2. 위안화 평가절상 배경

-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확대 등 개방경제하에서 고정환율제 유지 어려움
 - 최근 들어 대미 무역 흑자폭 사상 최대 기록, 외환보유고도 2005년 6월말 기준 전년대비 51.1% 증가한 7,11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정환율제로는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
- 對미, EU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카드
 - 중국은 미국과 EU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증치세 환급을 인하 등 잇단 조치를 내놓았으나, 섬유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일부제품의 대미 섬유수출 중단이라는 막다른 곳에 몰림에 따라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오던 평가절상 카드 제시

- 예고된 기습 절상, 中 실리와 명분 챙기는 1석 2조 전략
- 금번 기습 평가절상 단행은 이미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서 예고된 것이기도 함
- 미국의 절상 요구에 대해 중국이 유연한 자세로 수용하면서 이를 통해 그동안 산적해 온 미중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의 '중국경제론'을 잠재우는 실리를 챙기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중국내 반응

- 중국내 금융관계자도 예상치 못한 절상이라고 발표하면서 절상폭이 소폭인 만큼 연말까지 5% 선의 평가절상의 추가조치 가능성에 대해 언급
- 중국이 소폭의 평가절상조치는 對미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그 절상자체가 의미있는 것임
- 현지기업의 경우 놀라움과 함께 예상보다 낮은 2% 선의 절상폭에 대해 안도감 표시. 수출기업에는 일정 영향이 있을 것이나 오히려 이를 계기로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II. 주요국의 반응

1. 미국

- 부시행정부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조치 및 변동환율제 채택 방침 결정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행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반면, 미 업계는 절상폭이 턱없이 낮다며 불만을 표시
- 미국 진출 우리기업들의 반응도 소폭 절상으로 별 영향을 받지 않

을 것이며, 5% 정도의 평가절상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자체 판단하고, 절상폭 만큼 가격인상을 요청할 경우 이를 흡수할 방침임

2. 일본

- 일본 정부는 평가절상 조치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경제계에서는 동 조치는 향후 절상 등의 추가조치를 향한 전조로 평가
- 절상폭이 소폭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중국진출 가공수출기업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일본시장에서 중국산과 경합하고 있는 아국 기업의 경우 절상폭이 소폭에 그쳐 현재의 경쟁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

3. EU

- 경제계에서는 조만간 위안화 평가절상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별로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소폭 평가 절상으로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파급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
- 2%의 소폭 평가절상은 진정한 의미의 평가절상이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조치이며, 소폭 절상을 택한 것은 향후 환율을 다시 높이려는 단계적 전략으로 평가

4. 홍콩

-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달러화 페그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위안화 절상은 중국인의 홍콩내 소비를 진작시켜 홍콩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의 대중수출에도 낙관하고 있는 한편, 일부에서는 대중국 수출 감소로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기도 함

- 홍콩 주재 한국기업들은 중국 현지에 생산체제 및 유통체제를 갖추고 있어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됨

III.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

1. 중국시장에 미치는 영향

- 위안화 절상으로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기도 하나 최근 내수 소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산 제품이 아직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2%의 소폭 절상에 따른 수출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임
- 금번 조치로 위안화 절상 관련 불투명성이 개선되어 수출환경 개선에 따른 득이 평가절상에 따른 실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임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2%대의 소폭절상으로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대중 교역품목 가운데 70%가 중간재로 양국간 산업구조와 수출구조에 따른 보완적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소폭의 가격변동에 따른 교역 탄력성은 크지 않을 것임
 -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내수시장형으로 변모중이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신규투자는 동남아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됨

I. 위안화 평가절상 전격 단행

1.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

□ 중국 인민은행은 7월 21일 19:00부터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기존 8.28위안에서 8.11위안으로 2.1% 평가절상 단행을 발표

○ 美 달러화에 대한 고정환율제 전격 폐지

- 더 이상 미달러화에 위안화를 고정시키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대신 복수통화 바스켓 밴드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발표
- 중국정부는 복수외환바스켓에 대해 변동폭 0.3%내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외환바스켓에 포함될 통화와 각 통화별 가중치는 밝히지 않음

【인민은행 환율제도 개혁 발표문(해당 부분 발췌)】

“중국은 바스켓 환율을 참고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한 관리변동 환율제도로 환율제도를 개혁할 것”

“위안화에 대한 달러화 이외 기타통화 가격은 인민은행이 별도 발표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임이 허용될 것”

2. 위안화 평가절상 배경

□ 무역흑자, 외환보유고 확대 등 개방경제하에서 고정환율제 유지에 어려움 발생

○ 2004년 중국은 세계 3대 무역대국으로 부상, 글로벌 경제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미 무역 흑자폭이 지속

적으로 확대

- 금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여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2005년 6월말 기준 전년 대비 51.1% 증가한 7,110억 달러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 기록
- 중국의 수출증가와 외환보유고 확대로 고정환율제로는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과 EU의 공세 포커스가 시장개방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변경되면서 최근 섬유분쟁을 비롯한 무역마찰의 근본 원인으로 위안화 저평가가 주목됨

□ 평가절상, 최근 對미, EU 통상마찰에 대한 협상 카드

-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국과 EU의 통상공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증치세 환급을 인하 등의 잇단 조치를 내놓았으나 시장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임을 인식
- 최근 미국과의 섬유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며 일부제품의 대미 섬유수출 중단이라는 막다른 곳에 몰린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타결이 난제에 빠짐에 따라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오던 평가절상의 카드 제시

□ 차분한 막후 준비로 예고된 기습절상 단행

- 금번 기습 평가절상 단행은 이미 원자바오 총리 등 고위급 인사의 발언에서 예고된 것이기도 함
- 지난 3월 전인대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환율 변경은 예상치 못한 시기(出其不意)에 이뤄질 것이라며 불시 단행을 암시한

바 있으며,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점진적 방법으로 환율 메커니즘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지난 6월 26일 ASEM 재무장관회의에서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 환율 개혁 방향에 대해 '주동성', '통제가능성', '점진성'의 3원칙을 공식적으로 확고히 한 바 있음. 이번 2.1% 소폭 절상은 바로 이러한 3원칙에 준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중국 내부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 왔으며, 지난 6월 '아주주간'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의 환율개혁 등의 조치는 이미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학계에서도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경제에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등 중국 내에서도 여론 준비를 하여 갑작스런 충격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음

3. 중국내 반응

□ 중국 금융권 반응

- 중국인민은행은 평가절상을 발표한 날 저녁 9시까지도 상하이에서는 대부분의 금융계 및 기업계 관계자들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 중국 초상은행의 한 관계자는 21시경 KOTRA 상하이 무역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평가절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서 "중국의 은행가에서는 올 7~8월 중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였으나 예상보다 조금 빠른 것 같다"고 말함
- 이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 평가절상 가능성과 관련, "은행가에서는

연말쯤 5%선의 평가절상이 한 차례 더 있을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올해 10%의 평가절상이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요구하는 20%선의 평가절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이 관계자는 또, “위안화가 관리적 변동환율제도로 갈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고정환율제도나 마찬가지로이며 (완전)변동환율제도는 안할 것”이라고 덧붙임
- 심천발전은행 상하이 지점의 한 관계자는 사건임을 전제하면서 “경제 정책이 종래의 재정정책에서 통화정책으로 전환되는 움직임으로 본다”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을 내다봤음
- 이 관계자는 21일 오후 9시 경 “위안화 평가절상 소식을 들었다”면서 역시 사건임을 전제하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을 제시함
- 한편, RBS(Royal Bank of Scotland) 홍콩의 한 펀드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10% 폭의 평가절상을 예상했고 자사에서는 3~4% 폭의 평가절상을 예상했으나 이번 인민은행 조치는 기대치보다는 낮은 것”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당장은 스파크가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중국은 향후 국제시장의 반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내다봤음
- 그러나, 그는 “위안화 환율 변동이 시작된 것 자체가 가장 큰 의의라고 본다”고 덧붙임
- 한편, 중국이 소폭이나마 전격적인 평가절상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 중국이 미국에 대해 유화책을 보내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음

-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해 섬유류 수입제한 조치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화해 조치를 보낸 것일 수 있으며,
- 다른 한편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의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중국이 유화 조치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중국의 7. 21 평가절상 조치는 절상 폭이 소폭이어서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비즈니스의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상하이 은행 관계자
 - 3~5% 정도까지 평가절상은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인 10%까지는 안될 것(수출이 7.8% 가량 줄기 때문에 불가능)
 - 금일 엔화는 2% 평가절상됨
- 교통은행 외고교(外高橋)지점 관계자
 - 수출 감소,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측면에 영향
 -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효과
 - 중국 일부지역 경기 및 투자 과열 경감
 - 중국 해외투자 증가 및 국제경쟁력 제고
 - 중국 무역업체들의 구조 및 대외 무역방식 변화(장기적으로 유리)
 - 중국내 투자자 신뢰도 제고
 - 흥미한 중국 증시에 호조 요인
- 상하이은행 자딩(嘉定)지점 관계자
 - 평가절상 폭이 크지 않아 중국에 미치는 영향 적음
 - 평가절상은 국제압력과 중국의 엄청난 외환보유고가 큰 요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

- 중국 업체에 대한 영향은 주로 수출형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며 내수형 기업에게는 호재임
- 이번 조치는 제 1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평가절상을 예상하며 다음번 절상 폭은 이번보다 좀 더 클 수 있음

○ 光大증권 연구소 이코노미스트

- 중국 거시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음

□ 중국 관련 연구소 반응

○ 申銀萬연구소 이코노미스트 관계자

- 중국증시에 호조 요인

○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관계자

- 중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심리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
- 이번 환율 변동 폭이 중국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능력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 소폭 평가절상은 물가안정과 수입품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음

□ 중국 주재 기관 반응

○ 홍콩 TDC 상하이 대표처 :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전망

○ JETRO 상하이 대표처

- 평가절상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큰 관심을 보이지 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다는 입장

- JETRO는 약 1달 전에 중국내 각 대표처를 통해 현지 진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 당시 90% 이상의 업체들이 3~5% 폭의 평가절상 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었고, 다만 10% 이상 평가절상 되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중국내 일본 기업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본적으로 중국 내수 비중이 많아 당장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중국 업계 반응

- S 원단(지사화 업체 바이어)
 - 완제품 수출 가격 인상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 예상
- 중국 석유화학
 - 해외로부터 물품 인수 후 90일 이후 송금하는 비율이 높아 환율 인상으로 이익 예상
- 상하이 烙烙무역(자동차 부품 회사)
 - 수출 물량이 매우 많고 마진 폭이 낮아 평가절상의 영향이 비교적 크다고 생각함
- D방직
 - 중국산은 가격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2% 정도의 평가절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음

- 중국 방직업계에 있어 최대 고려 요인은 환율이라기 보다는 미국 등지로부터의 수입쿼터라고 생각

□ 현지 우리기업 반응

- 현지 우리기업의 반응은 놀라움과 안도감 교차
 - 시기적으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기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허를 찔렸다는 반응과 예상보다 낮은 2% 수준의 절상폭에 대한 안도감 표시
 - 중국내부가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만큼 절상폭이 예상보다 높지 않아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임
 -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로 수출기업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올 것이 왔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II. 주요국의 현지 반응

1. 미국

□ 美 정부측 반응

- 부시행정부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조치 및 변동환율제 채택 방침 결정에 대해 찬사를 보내는 한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중국의 실행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 환율정책을 총괄하는 미재무성측 반응
 - 존 스노우 재무성 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발표 직후 재무성 웹사이트를 통해 환영의 메시지를 게시
 - . “중국이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를 채택한다는 발표를 환영하며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스템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평가함. “그러나 절상폭이 2.1%에 그친 것에 다소 실망감을 표하고 중국의 환 바스켓 제도가 시장여건에 맞게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
 - 스노우 장관 메시지 주요 내용
 - 중국 정부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좀더 변동적인 환율제도를 도입한데 환영
 -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은 중국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바, 미국은 향후에도 중국정부의 환율정책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할 것임
 - 향후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여부는 중국정부의 적절한 환율정책

이행 여부에 달려 있음

- 백악관의 Scott McClellan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변동환율제를 도입하겠다는 중국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답변
- 연방준비위원회 (FRB) 그린스펀 의장 역시 미상원에서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중국정부가 변동환율제로 변경하는 것은 아주 좋은 출발' 이라고 언급
- 그러나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미국 금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히고 중국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장기금리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나, 이런 패턴에 대한 변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美 의회의 반응

- 중국산 제품에 27.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주도한 뉴욕 주 출신 민주당 Charles Schumer 상원의원은 좋은 출발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함

□ 美 금융계 반응

- 경제단체, 노조 등 민간부문은 중국의 이번 환율정책 변화 발표가 위선적이며, 불충분하다고 지적. 특히 절상폭이 2%에 그친 점에 강한 불만 표시
- 뉴욕은행(Bank of New York)의 아시안 미국 유보금(ADR : Asian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인덱스는 1% 급등함. 이는 동 은행의 전체 인덱스가 0.24% 떨어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임

-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만의 외환 트레이더 Scott Schultz는 위안화 절상으로 일본 수출업체들이 경쟁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본 엔화의 가치는 향후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함. 또한 아시아 통화의 강세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상당기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중국 제품의 수입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월마트 등 중국에서 많은 상품을 수입하는 소매업체들의 주가가 하락

□ 美 업계 반응

- Chinese Currency Coalition
 - Chinese Currency Coalition은 미국의 공업, 농업부문의 근로자와 경제 이익단체들이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로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대비 40%이상 평가절하되어 있다고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측이 2%만을 평가절상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난
 - 동 단체의 Doug Bartlett 회장은 이번 위안화 절상조치가 국제 무역제도에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 AFL-CIO
 - 미국 노조연합체인 AFL-CIO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근로자 인권문제, 환율 조작문제, 무역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단체임
 - AFL-CIO의 Richard Trumka 재무담당자는 중국의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 조치가 기존 중국의 불공정 환율제도로 인해 일자리를

있는 미국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미국산 상품이 아무리 우수해도 40% 이상 불공정한 가격을 행사하는 중국산과는 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함

□ 美 현지 수입상 반응 (협회 등 포함)

- 미국섬유의류수입자협회(USA-ITA)의 부사장인 Julie Hughes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런 조치가 미국 의회의 대 중국 통화정책과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압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
-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Thomas Donohue는 중국이 최초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이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평가.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동안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할 것이라고 천명해 온 것을 상기시키는 것임. 중국의 이번 결정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 직물 수입 에이전트 M사
 - 위안화의 2.1%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산 수출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 제품의 대미 수출 증가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 이유는 중국산 수출가격이 한국산에 비해 최소 20% 이상 낮은 상태이고 다른 국가제품에 비해도 수출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그러나 향후 환 바스켓 시스템을 가동하면 보다 위안화가 보다 유연해지고 자유경제체제에 편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안화

의 현실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의류 수입상 W사

- 이번 평가절상은 미미한 폭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에 오더를 내보내지 않거나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중국에서 공임이나 수송비 등과 같은 코스트가 인상될 것이 확실하고 따라서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내려가는 상황이 현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아주 작은 폭이지만 이러한 코스트 상승은 섬유업체에서는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상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를 생각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이번 조치와 환 바스켓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도 위엔화의 평가절상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른 소싱국가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전망

○ 수산물 수입상 S사

- 그동안 위엔화의 평가절상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었고 개인적으로 10%는 너무 크고 5% 정도 절상될 것으로 예상해 왔음. 따라서 2%의 절상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함
- 중국 가공업체(수출업체)와는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환율변동에 따른 문제는 없지만 중국내에서 조달하는 부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인상되기 때문에 평가절상을 이유로 2% 정도의 가격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변동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산

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상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

- 한국의 수산가공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거의 100%가 이미 제 3국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한국 제품과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위안화의 절상으로 인해 한국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

□ 美 진출 우리업계 반응 (지상사)

○ S사

- 위안화의 2.1% 평가절상은 매우 소폭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체 분석에 따르면, 5% 정도까지의 평가절상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물론 중국 업체가 가격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절상 폭 만큼의 가격인상을 요구한다면 절반은 인상해 주고 나머지는 원가절감을 통해 흡수할 예정임
- 아울러 경쟁사들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고 해도 같은 환경에서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경쟁에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한국 제품의 경우 이번 위안화 절상이 매우 소폭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

○ H사

- 중국산을 거의 수입하지 않고 있어 어느 정도 중국의 수출가격이 상승

할 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음

- 그러나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진 만큼, 그리고 일종의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만큼 앞으로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가격에 민감한 품목들에서 중국산이 경쟁력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 한국 제품의 상대적인 경쟁력 상승은 결국 중국 위안화의 절상폭과 관련되어 있으나 중국산의 상대적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위안화가 절상된다고 해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

○ D사

- 위안화가 절상되어 중국 업체가 가격인상을 요구해 흡수할 방침임. 그러나 한국 제품보다는 워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함

○ W사

- 중국에서 봉제완구를 생산하지만 본사와 달러로 거래하고 있어 미국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 또한 세계에서 판매되는 봉제완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봉제완구의 가격이 인상되면 수입상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중국 공장의 코스트가 인상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가격인상을 요구해야 하겠지만 바이어가 Toys R Us, JC Penny, Target 등과 같은 대형 할인체인점이고 물량이 크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받아들일지 의문임

○ H식품

- 2.1%의 평가절상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흡수하게 될 것임. 이미 3% 정도의 절상은 예상했던 것이고 5% 이하는 바이어 에이전트가 흡수하기로 협의의 마친 상태임
- 그러나 미국이 당초 10%의 절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평가절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을 인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바이어에게도 가격인상분을 어느 정도 전가할 예정
- 만약 10%나 20% 정도로 평가절상 폭이 커 진다면 마치 한국에서 중국으로 소싱을 이전했듯이 중국을 떠나 다른 국가로 소싱을 이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대체 소싱국을 물색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과 소액의 거래를 시작하고 있음. 대체 소싱국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가 유망한 국가들임

○ L전자

- 절상부분 만큼 바이어(달러)에게 인상분을 전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임. 바이어가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이지만 받아들여도록 노력해서 중국 공장에 절상으로 인한 손실을 주지 않을 생각임

○ B가구

- 현재 본사가 중국산 부품을 한국으로 수입하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사 제품의 경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중국산 가구의 대 미국 수출가격이 다소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 반덤핑 판정과 더불어 중국산에 대한 바이어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할 지가 변수로 판단됨. 그러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가절상으로 바이어들이 중국산 수입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국 가구는 한국 가구와 가격대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평가절상은 한국 가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K중공업

- 중국산 공작기계는 한국 제품과는 다른 세분시장(Market Segment)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중국산 수입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

2. 일본

가. 일본내 반응 종합

□ 전반적인 반응(정부 등)

- 일본정부는 중국위안화의 자율적인 개혁을 촉구해온 입장인 만큼 위안화 평가 절상 조치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 다만 2%라는 소폭 절상, 중일무역에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정부.여당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 타니가키 재무상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 통화 바스켓제를 채용한데 대해 “유연성을 갖추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 한편으로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시할 것이라 언급
- 호소다 관방장관은 “경의를 표한다. 일본도 ‘70년대에 고정환율제에서 절상.변동환율제로 이행한 경위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마이너스만이 아니고 경제 국제화를 향한 큰 1步”라는 입장 표명

- 일본은행은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로 보다 유연하게 환율 레이트가 결정되게 됨으로써 중국 경제성장이 더욱 균형 있고 지속적인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담화를 발표
- 그러나 한편 수상관저에서는 “2%로는 의미가 없다. 일본과의 수출입도 전혀 달라지는게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임
- . 외무성 간부는 “위안화는 과거 20년간 대폭 하락해오고 있다. 긴 역사의 흐름속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급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언명
- . 자민당내에서도 미온적인 견해가 두드러지고 있음. 야나기사와 정조회장대리는 “의외로 빨랐는데 일본이 달러당 360엔에서 308엔으로 절상한 것을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절상폭이다.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추가절상관련 반응

- 이번 절상은 중국이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향하는 출발점에 불과, 오히려 앞으로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음. 주요기업 CEO 등도 이번 절상이 향후의 큰 움직임(대폭적인 절상 등 추가조치)을 향한 전조라고 보면서도 변동폭이 작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주요기업 CEO중에는 이번 절상이 2%의 소폭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절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일본내에서는 중국 경제의 실력으로 봐서 10% 이상의 대폭 절상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음
- 절상폭이 2% 수준이라면 추가 절상이 필연적이라고 보며 자금이 위안화에 집중,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관

계자들이 우려

-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구마노 주임연구원은 “문제는 1달러가 8위엔대(심리적 경계라인)에서 7위엔대로 언제 진입할 것인가하는 시기가 중요사항이라고 보고 있음
- 7위엔대로 돌입할 경우 이후부터 절상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절상에 따른 영향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나. 주요 부문별 파급영향 및 전망

□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 다이이치생명연구소 등 대부분의 싱크탱크는 금번 절상조치로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은, 우선 절상폭이 예상보다 소폭이란 점에서 당장은 경미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함
- 노무라증권금융경제연구원의 시산으로는 이번 절상으로 중국경제는 2005년도의 실질 경제성장율이 0.5%정도 하락, 일본의 대중수출은 1.5%정도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 일본경제 전체에서 점하는 대중수출 비중을 고려하면 올해 일본의 실질 경제성장율은 0.03%정도 끌어내릴 것으로 추산되나 이번 절상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적을 것(동 연구원 기우치 선임연구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다만 절상폭이 향후 확대된다면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무역.투자관계가 깊은 일본, 미국의 경제에 영향이 파급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기업(및 활동)에 미칠 영향

- 일본기업은 위안화 절상의 영향을 주시하는 입장. 금번 절상은 중국을 세계의 공급기지로 간주, 해외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 기업에게는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절상으로 미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엔고달러약세가 진행 되면 수익면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 그러나 위안화절상은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플러스요인으로도 작용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주요 기업별 반응>

- 중국을 미국에의 섬유제품의 수출거점으로 하려는 **쥬킨물산**은 수출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베트남 등에 생산거점을 이전한다는 방침
- 생산거점이 중국에 집적되고 있는 **브라더공업**은 1%의 절상은 영업손익 베이스로 1억엔의 수익감소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산
- **다이하츠공업**은 절상으로 해외로부터 중국시장에 수입차가 유입 되게 되면 경쟁격화로 사업전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 **후지제록스**는 극단적인 위안화절상으로 생산코스트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산거점의 재편을 검토할 방침
- **수산관련 기업**들은 위안화의 구매력이 높아짐으로써 대일 수출용의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

- 여행관련기업들은 현지의 호텔, 버스회사가 편승 인상을 하지 않을까(JTB)라고 우려
 - . 일반적으로 패키지투어의 원가의 30~40%는 체재비가 접하여 대 중국 투어의 가격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반면 위안화절상은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
 - . 코마츠는 일본에서 수출해온 주요부품을 중국공장에서 조립하여 판매하고 있어 위안화에 대해 엔화가 절하되는 만큼 수익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중국에서 사업전개중인 기업들의 대부분은 절상조치가 이루어진 현재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 NEC는 휴대전화사업을 전개중인데 부품조달에서 판매까지 중국 역내에서 완결하고 있어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음
 - . 휘스트 리테일링사(슈퍼마켓업)는 제품의 90%를 중국내 계약 공장에서 생산중이어서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음
 - . 중국에서 77개처의 체인점포를 전개중인 쇠고기덮밥(규동)전문 요시노야DNC도 쇠고기와 쌀을 중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당장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음

□ 아국주재기업의 현지활동에 미칠 영향

- 일본시장에서 중국산(및 중국 현지 생산 역수입품)과 경합하고 있는 아국주재기업. 상사들은 이번 절상이 예상보다 소폭에 그쳤다

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경쟁구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절상에 따른 영향은 순수 중국산보다는 역수입품과의 경합관계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바, 역수입품의 경우 해외(일본 등)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 수입분의 상쇄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파급영향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절상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경우 중국산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마진을 저하 등으로 인한 수입선 전환 가능성의 대두로 인해 아국산이 현재보다는 일본수입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참고자료1>일본 주요기업 CEO의 코멘트 내용>

성명	코멘트 내용
오쿠다 경단련회장	- 이번 결정은 중국경제의 가일층의 국제화를 향한 스텝으로 평가
사사키 일본무역회장	- 종합상사는 다양한 형태로 중국비즈니스와 연관되고 있어 위안화레이트 변경으로 받는 영향은 플러스마이너스 양면이 공존 - 이번 절상폭이라면 영향은 한정적
기타시로 경제동우회대표간사	-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제협조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로 평가 - 통화 바스켓제를 도입함으로써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여타 통화에 영향이 파급될 것
모리시타 마츠시타전기산업회장	- 일본경제의 대세에 영향은 없을 것 -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달러자금을 위안화로 바꾸었을 것이므로 환차손은 거의 없을 것
미키 도쿄미츠비시은행 회장	- 예상보다 절상폭이 적은 편, 시기도 빨랐음 - 중국은 당분간 현체제로 갈 것

성명	코멘트 내용
쵸후지오 도요타자동차부회장	- 도요타자동차의 업적에의 영향은 경미할 것 - 중국은 이번 결정으로 본격적인 변동환율제 이행을 행해 움직였다는 점에서 좋은 일로 평가
미야우치 오릭스회장	- 달러페그제를 이탈한 것은 예상한 대로임 - 향후 큰 움직임에의 전조라고할 수 있는데 변동폭이 작은 편
와타 신일본석유회장	- 절상폭은 의외로 적은 편, 미국경제에의 영향이 어느정도 나타날지 주시할 것
이데이 소니최고고문	- 상징적인 의미에서 중요, 달러당=110엔정도라면 문제없을 것, 대부분의 일본기업은 105엔수준을 상정중
고에다 닛산자동차공동회장	-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높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배경,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일
스도 JFE홀딩즈사장	- 절상비율은 적으나 소폭씩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대응
사카키바라 도오레스사장	- 섬유업계전체로 절상폭이 10%정도까지라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봄 - 향후 20~30%절상이 된다면 중국제품에 밀려오던 일본섬유제품에도 경쟁력이 회복될 것
스즈키 오지제지사장	- 일본의 종이.펄프산업에는 플러스요인 - 현재 중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산수입이 증가 경향, 절상은으로 일본에 유입이 어려워질 것
야노 오쿠라산업사장	- 코스트고 요인이나 2%정도라면 기업노력으로 흡수 가능, 가격전가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 있음

<(참고자료2)일본 주재 아국기업.상사의 반응>

회사명	취급품목	의견 및 반응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타이어, 튜브	- 중국산은 순수한 중국산과, 일본기업의 현지공장으로 부터의 역수입품으로 구성 - 순수 중국산은 물량도 매우 적고 품질수준도 국산에 경쟁이 안되는 상황 - 역수입품의 경우 위안화절상의 영향은 해외(일본 등)에서 조달하는 원부자재수입분의 상쇄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회사명	취급품목	의견 및 반응
농수산물유통공사	야채, 가공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류는 한국이 공급하는 품목과 중국이 공급하는 품목이 종류가 다른 것이 많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 - 가공식품의 경우 대표적 경합품목인 김치류의 경우 중국산은 저가품 위주 - 따라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반전 되는 현상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고려무역	식품, 주류,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급품중 중국산과 경합하는 품목은 없음 - 위안화 절상과 관계없이 현재의 경쟁구도에는 별로 큰 영향 없을 듯
POSCO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철강은 범용품, 저가품 위주로 후판(Plate), 핫 코일 등의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이루고 있음 - 반면 POSCO는 고급품위주로 공급 품종 비중이 옮겨 가고 있는 추세 - 중국산이 중국내 가격이 높은 이유도 있으나 일본의 엄격한 품질수준 요구와 규격관리를 아직까지 맞추지 못하고 있음 - 위안화 절상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중국산은 POSCO에 경쟁상대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것임
로케트전기	건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시장에는 주로 일차전지가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중국산 공히) - 국산, 중국산 공히 시장판매가격자체는 큰 차이가 없고 다만 달러 마진율이 중국산의 경우 높은 편임 - 일본 주요메이커의 직수입의 경우 히다치막셀은 중국산, 산요는 인도산을 주로 수입중이나 물량은 소량(기타는 홈센터, 할인매장, 100엔숍에 유입중) - 절상폭이 작아 일본수입업체의 마진감소폭도 적어 타국산으로 수입선 전환 가능성이 없으므로 아직은 메리트 향유 어려울 것
효성	석유화학제품, 중공업, 타이어보강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과 경합하는 품목이 거의 없는 상황 - 특히 타이어보강재의 경우 아직 중국산이 한국산과 같은 가공기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운운하기 이전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절상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을 것

4. EU

가. 일반적 반응 : 이미 예견된 일로 놀랍지 않음

- 국제 금융시장과 경제계에서는 조만간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며, 특히 이 같은 예측은 지난 수요일 중국 정부가 2005년 상반기 동안에 GDP 연간 증가율이 9.5%에 달했다고 발표했을 때 더욱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였음
- 이에 따라 7월 21일의 조치를 현지 경제계나 언론이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 평가절상 폭 : 상징적 수준

- 중국 당국의 2%의 소폭 평가 절상을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 절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키 위한 정치적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음
- 즉, 현재 세계 교역의 불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는 아닌 것으로 평가

□ 추가적인 평가 절상 여부 : 수개월내 다시 절상할 것

-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정부 당국간 벌여 온 신경전은 금번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결정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간주
- 중국 정부가 2%라는 소폭 평가 절상을 택한 것은, 향후 다시 환율을 높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려는 전략이라고 평가

- 따라서 수개월내 평가절상 조치가 추가로 취해질 것으로 전망
 -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이번 조치를 'first step'이라고 언급
- 상당수 경제분석가들이 위안화가 여전히 30% 정도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적 파급효과 : 미미

- 상징적 수준의 평가절상인 만큼 미치는 영향도 상징적 파급에 지나지 않을 것임.
 - 위안화가 2% 평가절상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질주하는 중국의 수출 활동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데도 기여하지 않을 것임.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로지 중국과의 교역에서만 오는 적자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간 교역에서 유래되기 때문임
 - 현재 미국과 유럽이 중국 총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동 비중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임
- 이론적으로는 유럽의 對中 교역불균형을 줄일 것이나, 실제로는 유럽기업에 대한 영향도 역시 거의 없을 것임
 - 대부분의 산업계가 평가절상 폭이 미미하여 실제 시장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
 - 평가절상 조치의 플러스 요인
 - . 특히 중국의 저렴한 철강 및 화학 산업의 과대 생산능력으로 피해를 받아온 기업들에게 호조요인이나 이 역시 영향 자체는 크

지 않음

- . 유럽 시장을 두고 중국기업들과 다투고 있는 유럽기업들에게도 호조 요인이나, 단지 품질이 가격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틈새시장에서만 도움이 될 것임(영국 Barclays Capital의 경제전문가 Julian Callow)
- . 유럽 관광산업계 : 위안화 강세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국 중산층의 서유럽 관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평가절상 조치의 마이너스 요인

- . 독일의 Siemens와 같은 기업(즉, 對中 수출이 많으면서도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에 거의 직면하지 않고 있는 첨단 고품질 기계 및 부품 제조업체)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주된 업계임. 그러나 독일 제조업자협회(Federation of German Industry)의 Gunter Schall 는 1-2%의 변화는 이들 고품질 기계 산업의 수출에 별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 역시 미미한 수준으로 보임
- . 중국을 전세계 수출기지로 간주, 투자한 모토롤라사와 같은 기업 : 중국 공장에서의 가공을 위하여 상당한 부분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 예상. 그러나 이 역시 이들 기업들이 현지에서 얻는 유로화 및 달러화 이익의 가치가 높아지므로 전체적인 순혜택은 플러스로 평가
- . 월마트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 : 전세계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수배, 공급하고 있어, 이론적으로 가장 명료한 피해업체로 간주되고 있음. 그러나 월마트의 반응 역시 소극적으로, 이미 80여개의 국가를 거래선으로 두고 있으므로 조달가격 상승이

없을 것이며 비록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자사 비즈니스에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타

- . 이태리 신발협회 : 큰 영향 없으며, 여전히 30% 과소평가된 상태
- . 핀란드의 노키아 Jorma Ollila 회장 : 자그룹이나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보다는 중국이 시장경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긍정적임. 달러화 대비 10-15%까지의 절상은 자그룹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이를 감안할 때 2%는 매우 적은 수준
- 중국 경제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감, 세계금융제도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임
- 유럽중앙은행의 Jean-Claude Trichet 총재 '세계 금융제도 안정에 도움이 될 것'
- 런던 금융시장은 위안화 평가 절상보다는 곧이어 알려진 런던 2차 테러공격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 위안화 문제는 미미한 변수로 작용함
- 유로화 강세 상황속에서 달러화 약세 영향을 흡수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은 유로화와 유로존에도 도움을 줄 것임 (프랑스 Thierry Breton 재무장관)

5. 홍콩

□ 홍콩 정부의 반응

- 홍콩재정사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Stephen Ip와 홍콩재정위원회 총재 Joseph Yam Chi-Kwong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달러화 pegging 시스템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함**
- 중국의 위안화 절상은 중국인들의 홍콩내 소비를 진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확대되어 관광산업이 확대되는 등 **홍콩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음**
- 또한 홍콩의 대중 수출에도 호조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홍콩총상회 Eden Woon Yi- Teng은 홍콩과 중국간의 CEPA협정에 따른 서비스 교류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대부분의 농산품 및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공급받는 홍콩으로써는 수입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가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함

□ 홍콩 금융권의 반응

- 절상 폭이 5% 미만이어서 평가절상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금융시장 및 경제전반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의 지속적인 절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존의 홍콩내 금융권에서도 5%정도의 평가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홍콩 금융권내 위안화 평가절상 전망치】

예측기관	전망일	전망치	2005	2006
HSBC	2005.4.6	불변	불변	불변
UBS	2005.4.1	1%이내 평가절상	8.20	8.00
도이치뱅크	2005.4.7	1%이내 평가절상	8.15	8.05
시티그룹	2005.4.26	3%이내 평가절상	8.03	7.71

Lehman Brothers	2005.4.29	5%이내 평가절상	7.90	7.20
모건 스탠리	2005.4.21	5%이내 평가절상	7.80	7.50
골드만삭스	2005.4.27	5~10% 평가절상	7.72	7.50
JP모건	2005.4.27	7%내외 평가절상	7.70	7.50
메릴린치	2005.4.8	10%내외 평가절상	7.48	7.45

자료원 : 외무부 국제경제국 자료(2005.5)

-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체 수출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홍콩에게도 품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됨. 실제 위안화 평가절상폭이 클 경우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큰 홍콩은 대중 수출에 대안시장으로써의 호조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그 폭이 작아 전체 수출입에 커다란 파급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스탠다드차터스의 지역경제전문가인 Mike Moran은 대부분이 예상했던 3~5%의 평가절상보다 낮아 실제보다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으며 이번 평가절상으로 인해 향후 평가절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인식되어 추가적인 핫머니유입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함
- 뱅크오브차이나(홍콩)의 수석경제학자 Huang Shao Ming은 이번 중국정부가 시행한 위안화의 폐깁시스템에서 바스켓시스템으로의 변동은 위안화 환율이 시장지향성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부여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평가절상을 시행했다는 중국정부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경제는 낮은 수출마진을 얻고 있는 섬유업계가 가장 구체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반면 철광석이나 원유 관련 업체들이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가장 큰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서비스업종에서는 부채부담이 컸던 항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임. China

Southern Airline의 Xu Jiebo 부장은 이번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10억 위안의 평가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함

- 홍콩내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이미 5월부터 위안화 평가절상을 대비한 시스템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번 중국정부조치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홍콩 주재 한국기업의 반응

-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이 중국현지에 생산체제 및 유통체제를 갖추고 있어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큰 영향이 없음
 - 특히 홍콩소재 한국기업들은 결제수단이 미화이므로 위안화 가치 변화가 주는 영향도 미미한 부분임. 단지 자산을 중국에 소유한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며 중국현지공장의 운영비 증가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역시 위안화 절상폭이 작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홍콩소재 광전자의 경우도 모든 대금결제가 위안화로 이루어지고 있어 영향이 극히 적은 것으로 언급함
 - 자동차의 경우도 최근 현대자동차 등이 중국에서 현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어 수입원가하락과 중국내 부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에 위안화 절상분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함

III. 위안화 평가절상의 영향

1. 중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중국내수 경기 큰 영향 없을 듯

-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최근 거시 경제조절 정책 등 여러 가지 경제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국의 소비수요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하고 있음
- . 금년 1~5월 소비품 소매총액은 2조 4,674.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2% 증가.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p 높은 수준이며 물가요인을 제외하면 1~5월간 실제 소비 증가율은 11.8%로 최근 가장 높은 수준 기록

□ 중국의 수출입 변화 크지 않을 듯

-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라 일부 수출감소와 수입증가 효과가 예상되나 중국의 전체 교역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으로 수입비용 하락에 따라 수출가격 인상효과는 다소 상쇄될 것
- 또한 중국산 제품이 아직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소폭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시장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중국의 수출기업들은 위안화 평가절상 지역으로 인해 외국의 반덤핑 공세와 외환 포지셔닝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 섬유분쟁으로 상당수 섬유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협상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

□ 위안화 절상으로 불투명성 개선

- 금번 조치로 위안화 절상 관련 불투명성이 개선되어 수출환경 개선에 따른 得이 평가절상에 따른 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임

2.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對중국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 소폭 절상폭으로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현재 한중간 교역제품의 70%가 중간재로 양국간 산업구조와 수출 구조에 따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보이고 있어 소폭의 가격변동에 따른 교역 탄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임
 - 또한 최근 중국의 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가공 무역 구조로 인한 환율 상쇄효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 장기적으로 중국정부는 중국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환율변동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외부환경의 변화에 따른 양국 교역량과 구조변화는 미미할 것
 -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으로 중국의 수입수요가 확대되면서 중국 수출둔화 효과가 상쇄되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속적으로 견실함을 이어갈 것
- 우리기업의 對중국 투자가 점차 내수시장형으로 변모중이어서 큰 변화 없을 듯

- 수출입과 비교하여 투자는 보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최근 우리기업의 대중투자가 수출가공형에서 시장 지향형으로 변모하고 있어 우리의 대중국 투자 전반적인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 수출시장 환경의 변화로 현재 내수시장 지향형 투자 증가세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존 및 신규 수출가공형 투자는 동남아지역으로 이전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됨

□ 제3국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한중 산업 경합, 보완 관계 업종에 따라 영향 상이

- 중국과 경합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고, 이와 반대로 보완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경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품목들은 위안화가 절상되면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끝.

작성자

- 김선화 부장 (브뤼셀 무역관)
- 신태철 차장 (도쿄 무역관)
- 박한진 차장 (상하이 무역관)
- 임채근 차장 (뉴욕 무역관)
- 정준규 과장 (베이징 무역관)
- 임성주 과장 (워싱턴 무역관)
- 이영기 과장 (홍콩 무역관)
- 김윤희 책임연구원 (동북아팀)

Copyright © 200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